

정부,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폐지 추진

농어민·서민경제 큰 타격 우려

농협·수협·신협·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예수금 이탈 고심

정부가 조합의 비과세혜택을 폐지하고, 조합 출자·이용고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를 없애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농어민과 서민 경제에 큰 타격과 함께 지역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영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9%의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반면에 조합 출자·이용고 배당은 과세특례를 없애는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됐다. 1인당 1000만원 한도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이용고 배당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하는 대신, 단계적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비과세혜택과 같이 내년 5%, 2017년 이후 9%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115개 지역농협의 이익감소액이 5950억원에 달한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산이다. 지역농협당 평균 6억4200만원의 이익이 감소하는 셈이다. 2014년 말 기준 지역농협 비과세혜택액은 64조163억원으로, 전체 예수금(245조3852억원)의 26.1%를 차지한다.

입·매출 장려금과 유사한 것이라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대다수 선진국 협동조합들은 이용고 배당에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이대로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비과세혜택과 조합 출자·이용고 배당 과세특례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데다 상호금융기관들도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고기·잡채·순대 등 '한국월빙식품' 필리핀까지

aT, 필리핀식품박람회 참가 163건 3천만달러 상당 실적 지역 농식품 수출 확대 박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종필,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이하 aT)는 인구의 53%가 25세 미만으로 젊은 국가인 필리핀에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필리핀 파사이WTC에서 개최한 필리핀식품박람회에 참가했다.



필리핀 파사이WTC에서 열린 필리핀식품박람회에서 한국 식문화 홍보관 운영자들이 불고기와 잡채 등을 만들어 보이며 한국농식품을 홍보하고 있다. <aT 제공>

올해 15회째를 맞는 필리핀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로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 식품바이어가 방문해 필리핀은 물론 인근 동남아 지역 농식품 홍보 및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최적의 플랫폼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는 13개국 336개 업체가 참가하면서 5만5000여명이 방문했다.

한국의 음식에 대한 홍보를 펼쳤다. 불고기, 잡채, 김밥, 떡볶이, 순대 등 한국 음식을 시연했다. 박람회 참가 상품을 적극 활용한 메뉴 시연 및 제품으로 실질적인 한국 농식품 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 시장 중에 하나이며, 젊은 층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시장 선점이 중요한 곳이다. 이번 식품박람회 참가가 앞으로의 한국 농식품 수출 증가세 분기 전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등이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유충식 aT 식품수출이사는 "필리핀은 신규 유통바이어 발굴 및 기존 거래선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한류열풍과 연계한 수출 증가세를 지켜가야 할 동남아 최대시장"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장개척 활동 등을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 투자 1.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물 전망양호 매3억 8천만원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감정가이하 • 레스토랑, 카페, 산수유거리에서 20분, 광주호에서 5분거리 영업 빌딩 대지1054㎡, 건물473㎡, 은행 2억3천만 원에 5억7천

(주)전국부동산경매연구소 법인등록번호 200111-0181150 법인사업자번호 650-81-00051 ☎ 062-449-2552 (주/야) 무료 상담

미래가치 토지 도시계획 근거 빛그린 산단 인근 10억대 투자자 급히 모심! 귀향공인 010-5236-7458 KTX 개통 송정역 인근 부동산전문



“먹다 남은 수박 램·비닐로 싸지 말고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보관해야 안전”

소비자원, 세균증식 실험

먹고 남은 수박을 냉장보관 할 때 램이나 비닐에 싸기보다 작게 잘라 밀폐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1일 일반 가정에서 수박을 먹고 남은 상황을 가정해 반으로 자른 수박을 램으로 포장한 것과 각각 잘라 후 밀폐용기에 넣어 각각 7일간 냉장고에 보관했을 때 세균 증식 상황을 관찰한 실험결과를 공개했다.

장보관한 수박의 7일 평균 세균수는 500cfu/g으로, 반으로 잘라 램으로 덮어 수박의 7일 평균 세균수인 5만 1000cfu/g의 100분의 1수준이었다. 한편 보관 방법에 관계없이 냉장보관한 수박들은 모두 하루가 지나면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이는 수박을 자르는 과정에서 껍질부분에 있던 세균이 안쪽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국산 식재료정보 다음카카오에 뜬다

DB 작업 완료...콘텐츠 노출

국산 식(食)재료 정보가 다음카카오를 통해 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daum)과 카카오 등을 통해 농식품부에서 발간한 국산 식재료 정보를 노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카카오는 국산 식재료 정보(책자 3권 총667페이지)에 대한 DB와 작업을 지난달 말 완료하고 다음 백과사전 및 검색서비스를 통해 콘텐츠 노출에 들어갔다.

난 6월5일 오픈한 한국외식산업정보포털사이트다. 이번엔 제공된 자료는 '대한민국 식재총람'(2015년), '숨겨진 맛 식재의 재발견'(2014년), '대한민국 8도 식재총서'(2013년) 등에 수록된 내용으로 식재료 개별품목별 요리법·주요 생산지·영양성분, 각 지자체별 식재료 생산정보 등 총 405건을 포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다음카카오의 협업을 통해 국산 식재료 정보검색 및 접근이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책자 및 파일을 통해 정보이용의 불편함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국산 식재료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